

## 이교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②

부처님은 죽었는가

2005.09.07 / [향 산 기자]

### 질문 4. “부처는 죽었다. 그러므로 그대들을 도울 수 없다.”

기독교도들이 이렇게 말할 때, 불교도들은 효과적으로 대답을 하는 데에 가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이 불교에 대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은 오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불법(佛法)’을 잘 알고 있다면 이런 주장을 논박하는 것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첫째, 부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분께서는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경지’인 ‘열반’을 성취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Nirvana)’에 부처주신 또 다른 이름은 ‘불사(不死)·불멸(不滅; Amata)’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성취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생사(生死)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반’은, 기독교 『성경』에 언급된 것처럼 육체가 부활하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천진난만한 ‘영생(永生)’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것처럼 미묘해서 묘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해주셨듯이(『맛지마 니까야』 No.72; 『숫타니파타』 제1076계송), 그것은 ‘비-실존(non-existence)’이 아닙니다.



◇ 쿠시나가르의 부처님 열반상.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똑같이 진실이 아닙니다. 40여 년에 걸쳐 활동하시는 동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열반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상세하고 명료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단지 그 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분의 말씀은, 맨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던 때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익하고 유효합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기독교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시험기간 중 선생님에게 해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 학생은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아무 것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운동선수가 그저 요청만 하면 ‘심판이 자기에게 상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훈련을 해서 자기 몸을 단련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저 모든 것을 주는 방식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이 나약하고 의타적이며 게으르게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열반’을 가리켜주셨고 그 길을 가는 데에 필요한 준비 사항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나아가면서 우리들은 체험과 실수에서 배우고, 원기와 활력, 성숙함을 계발하고 지혜를 닦게 됩니다. 우리들의 여정을 마치게 되면 마침내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숙련된 도움 덕분에 우리들은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그대들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정(假定)을 살펴봅시다. 기독교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해준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수천 년 전에 몇몇 사람들이 써놓은 기사(記事)로는 그 어느 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힌두교의 성전 중 하나인 『마하바라타 (Mahabharata)』의 한 기록에서는 “어떤 성인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마차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대 인도인들이 비행기를 발명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까요? 물론 증명해주지 못합니다. 고대 이집트 명문(銘文)에서는 “크눔(Khnum) 신이 토기 만드는 물레 판(potter wheel) 위에서 진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그저 진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할까요? 물론 증명하지 못합니다. 『구약서서』의 어떤 단락에서는 “바람(Balaam)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말을 할 줄 아는 당나귀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결정적 증거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타의 성서들에서 하는 주장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 『성경』에 쓰여진 주장들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왜 그것을 믿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대들 중 마지막 한 사람이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23, 16:28; 『루가복음』 21:32)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假定)은 “당신이 그 분에게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증명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기독교도들이 예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비(非)-기독교도들이 그러하듯이 기독교도들도 병에 걸려 죽고, 불행한 일로 고통을 당하며, 감정적인 문제들을 겪게 되고, 유혹에 굴복하고 맙니다.

세계는 여러 해 동안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점차로 의심을 하기 시

작했고 주임목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힘을 주고 인도해 주소서!”라고 했던 이 모든 기도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의 의심은 늘어만 갔고 그는 결국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는 불교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째서 기독교도들이 비-기독교도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왜 제 친구의 기도에 응답하고 그가 기독교도로 남아 있게 도와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 분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항의나 불복(不服)에 답을 하면서 기독교도들은 ‘자기 기도에 응답을 얻었던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와 똑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무슬림, 도교 신자, 시크교도, 힌두교 신자들, 신도(神道) 신자들과 관음보살 신봉자들이 있다는 것 또한 진실입니다.

### 질문 5. “기독교와 달리 불교는 매우 염세적이다.”

『웹스터 사전(Webster's Dictionary)』에 따르면, 염세주의[비관론]는 “인생에서 악(惡)이 선(善)을 능가한다는 믿음”입니다. 실은 ‘악이 선보다 더 넘쳐난다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교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도들이 ‘불교는 염세적’이라고 비난하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네들이 선호하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고 “선(善)을 행하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義人)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원죄(原罪)’의 교리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며 우리들 안에 있는 악(惡)이 선보다 더 강하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도들은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철저하게 염세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도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교는, ‘더욱 사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인간에게 ‘악’을 저지를 잠재력이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불교에서는 “우리들 자신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악을 정복하고 선을 계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악을 버리세요!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악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므로 “악을 버리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가꾸세요! 선한 것을 가꿀 수 있습니다. 만약 선을 가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므로, “선을 가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장(Book of ones)

이 가르침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이 염세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 질문 6. “만약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세계 인구의 증가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존재[생명체]들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만, 꼭 똑 같은 형태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자신의 업(業)에 따라 인간으로, 동물로 아니면 혹 천상의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극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은 ‘더욱 많은 동물들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고’ - 멸종 등으로 해서 동물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감소해왔습니다 -,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더욱 더 많은 동물들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부처님 가르침에 관한 지견(知見)이 점차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이 확실합니다.

심지어는 불법(Dhamma)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조차 그것이 ‘선(善)에 대해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은 강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구 증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 2005.09.07 10:45 / 조회수:260 >